마리 로제의 수수께끼

The Mystery of Marie Rogêt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2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04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Mystery of Marie Rogêt" ()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4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뤼 모르그의 살인 사건」 후속편.

현실과 나란히 흘러가는 이상적인 사건의 연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인간과 상황이 그 이상적인 흐름을 변형시키기에, 이상은 불완전해 보이고 그 결과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종교 개혁이 그러했다. 개신교라는 이상 대신 루터교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노발리스, 『도덕적 관점』 중에서.

아무리 침착한 사색가라 할지라도,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일들이 겹쳐 일어날 때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향한 막연하면서도 짜릿한 믿음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히곤 한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말이다. 내가 말하는 이러한 '반신반의'는 완전한 확신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감정에 가깝지만, 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확률론'이라 불리는 전문적인 이론을 빌려 설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마음은 좀처럼 완전히 억눌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확률론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수학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정확한 과학의 원리가, 가장 형체도 없고 모호한 추측의 영역에 적용되는 기묘한 모순을 목격하게 된다.

내가 이제 세상에 공개하려는 이 놀라운 세부 사항들은 시간 순서상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이룬다. 이 줄기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련의 우연들이 얽히고설킨 사건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연장선이자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메리 세실리아 로저스 살인 사건을 통해 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미 접했을 것이다.

약 1년 전, 나는 「뤼 모르그의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내 친구 슈발리에 C. 오귀스트 뒤팽의 정신적 특질을 묘사하려 애쓴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이 주제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 나의 목적은 그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었고, 뒤팽 특유의 기질을 보여주는 기이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믿었다. 다른 사례를 더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놀라운 전개 양상을 보이면서, 나는 마치 억지로 자백을 끌어낸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최근에 접한 사실들을 떠올려 보니, 오래전 내가 직접 듣고 목격했던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 같았다.

레스파네 부인과 그녀의 딸이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단락되자, 슈발리에는 즉시 그 일에 관심을 끊고 다시 예전처럼 우울한 사색에 잠기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던 나 역시 자연스럽게 그의 기분에 맞추어 행동했다. 우리는 여전히 생제르맹 외곽의 숙소를 빌려 지내며, 미래에 대한 걱정은 바람에 날려 보내고 오직 현재의 평온함 속에서 잠을 청했다. 우리를 둘러싼 지루한 세상은 어느덧 꿈결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꿈들이 완전히 끊임없이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뤼 모르그 사건에서 내 친구가 보여준 활약이 파리 경찰들의 상상력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관

들 사이에서 뒤팽의 이름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다. 그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했으나, 그 원리는 경찰청장에게도, 물론 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설명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적에 가까운 일로 여기거나, 슈발리에의 분석 능력을 직관에 의한 능력이라 칭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뒤팽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런 편견을 바로잡아 주었겠지만, 이미 흥미를 잃은 주제를 두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른 기질 탓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결국 그는 정치권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경찰청에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마리 로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뤼 모르그에서 벌어진 참극으로부터 약 2년 뒤에 일어났다. 마리라는 이름은 불운한 '시가 판매 소녀'의 이름과 매우 흡사하여, 그 성과 세례명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끌 것이다. 마리는 과부 에스텔 로제의 외동딸이었다. 마리의 아버지는 그녀가 젖먹이였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마리가 스물두 살이 되기 전까지, 즉 이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8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딸은 파베 생탕드레 거리에 함께 살았다. 그곳에서 로제 부인은 마리의 도움을 받아 여관을 운영했다.

상황은 마리가 스물두 살이 될 때까지 이대로 흘러갔다. 그러던 중 마리의 빼어난 미모가 한 조향사의 눈에 띄었다. 그는 팔레 루아얄 지하에 있는 상점 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로 그 일대에 출몰하는 무모한 모험가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다. 르 블랑 씨는

아름다운 마리가 자신의 향수 가게에 드나드는 것이 사업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리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마리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만 로제 부인은 그 제안을 다소 망설이며 받아들였다.

상점 주인의 예감은 적중했다. 활기 넘치는 젊은 여급의 매력 덕분에 그의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났다. 그녀가 가게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그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자 그녀를 흠모하던 이들은 혼란에 빠졌다. 르 블랑 씨는 그녀가 왜 없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로제 부인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신문들은 즉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던 찰나,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아침에 마리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건강한 모습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고, 평소처럼 향수 가게의 카운터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의를 제외하면, 당연하게도 모든 공식적인 조사는 즉시 중단되었다. 르 블랑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마리는 로제 부인과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시골에 사는 친척 집에 머물렀다고 모든 질문에 답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혔다. 마리는 사람들의 무례한 호기심을 피하려는 듯, 곧 향수 가게 주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파베 생탕드레 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지 약 다섯 달이 지났을 무렵, 친구들은 그녀가 두 번째로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녀에 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넷째 날, 센강에서 그녀의 시신이 떠오른 채 발견되었다. 시신은 생탕드레 거리 구역 맞은편 강가, 바리에르 뒤 룰의 한적한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살인 사건은 그 잔혹함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처음부터 살인임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맞물리며, 감수성 예민한 파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강렬한 충격을 준 사건은 내 기억 속에 전무하다시피 하다. 몇 주 동안 파리 사람들은 오로지 이 사건에만 몰두했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 당대의 중대한 정치적 현안들조차 잊힐 정도였다. 경찰청장은 이례적일 만큼 총력을 기울였고, 파리 경찰 전체의 역량이 당연히 이 사건에 최대한으로 투입되었다.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곧바로 시작된 대대적인 수사망을 범인이 아주 잠시라도 피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 금액조차 고작 천 프랑에 불과했다. 그사이 수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늘 이성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심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사건의 실마리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자 대중의 동요는 극에 달했다.

열흘째 되는 날, 당국은 원래 계획했던 현상금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번째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경찰에 대해 늘 비판적이었던 파리 시민들은 몇 차례나 심각한 소요 사태를 일으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경찰청장은 직접 나서서 '살인범을 검거하는 조건'으로 2만 프랑을 내걸기로 했다. 만약 공범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살인범 중 누구라도 검거하는 조건'으로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상금을 공고하는 문구에는 공범이 동료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자수할 경우, 그에게는 완전한 사면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 공고문 곳곳에는 시민 위원회가 작성한 개인 벽보가 덧붙여져 있었다. 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제시한 금액 외에 추가로 1만 프랑을 더 내걸었다.

이로써 총 현상금은 무려 3만 프랑에 달했다. 피해 여성이 처했던 비천한 처지와 대도시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액수라 할 만했다.

이제 이 살인 사건의 수수께끼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법한 용의자들이 한두 차례 체포되기도 했으나, 정작 그들을 범인으로 몰아세울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체포된 이들은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기이한 일이지만, 시신이 발견된 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중을 이토록 동요시킨 사건에 대해 단 한 줄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

은 채 3주가 지나갔고, 뒤팽과 나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문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연구에 몰두하느라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외출을 하거나 손님을 맞이한 적이 없었으며, 일간지의 주요 정치 기사를 훑어보는 일조차 거의 없었으니,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난 셈이었다.

살인 사건에 관한 첫 소식을 전해준 이는 G——였다. 그는 직접 우리를 찾아왔다. 18—년 7월 13일 이른 오후에 방문한 그는 밤늦도록 우리 곁에 머물렀다. 그는 범인을 찾아내려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몹시 분해하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파리 사람다운 태도로, 자신의 명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명예까지 걸린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대중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는 뒤팽의 재치에 감탄한다는 다소 익살스러운 찬사로 말을 맺더니, 뒤팽에게 직접적이면서도 분명 후한 제안을 하나 건넸다. 그 제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내가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이 이야기의 본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 친구는 그 찬사는 최대한 정중히 거절했지만, 제안만큼은 즉시 받아들였다. 비록 그 제안이 가져다줄 이점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을지라도 말이다. 논의가 일단락되자, 경찰청장은 곧바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가며 증거들에 대해 긴 논평을 덧붙였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아직 그 증거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청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길게 말을

이어갔고, 나는 밤이 깊어 졸음이 밀려오는 와중에 간간이 의견을 보탰다. 뒤팽은 평소처럼 안락의자에 꼿꼿이 앉아 예의를 갖추어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대화 내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초록색 안경 너머로 가끔씩 번뜩이는 눈빛을 보니 그가 잠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청장이 떠나기 전까지 이어진, 납덩이처럼 무겁고 지루한 일곱여덟 시간 동안 그는 침묵을 지켰을 뿐 결코 잠들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청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가 담긴 상세 보고서를 입수했다. 아울러 여러 신문사 사무실을 돌며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적인 정보를 다룬 모든 신문 기사도 전부 모았다. 확실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남은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8—년 6월 22일 일요일 오전 9시경, 마리 로제는 파베 생드레 거리의 어머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외출하며 자크 생퇴스타슈 씨에게만 자신의 행선지를 알렸다. 드롬 거리에 사는 이모와 하루를 보낼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드롬 거리는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짧고 좁은 길이었으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통로였다. 로제 부인의 하숙집에서 가장 직선거리로 따지면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생퇴스타슈 씨는 마리의 약혼자로 인정받는 사이였으며, 로제 부인의 하숙집에 머물며 식사도 함께했다. 그는 해 질 녘에 마리를 데리러 가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후에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마리가 이모 집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기에, 생퇴스타슈 씨는 굳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일흔 살의 병약한 노인이 된 로제 부인은

"마리를 다시는 못 보는 게 아닐까" 하며 두려움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말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월요일이 되자 그 소녀가 드롬 거리에는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뒤늦게나마 도시 곳곳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녀의 행방에 관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은 실종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6월 25일 수요일, 보베 씨는 친구와 함께 바리에르 뒤 룰 근처에서 마리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곳은 파베 생드레 거리 맞은편, 센강 강변이었다. 마침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 강물에 떠다니던 시신을 어부들이 발견하여 막 강가로 끌어올렸다는 내용이었다. 보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신을 확인하고는, 그가 찾던 향수 가게 점원이 맞다고 밝혔다. 그의 친구는 훨씬 더 빨리 시신을 알아보고 마리임을 확신했다.

얼굴은 검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순히 익사한 경우에서 보이는 입가의 거품은 보이지 않았다. 피하 조직에 변색이 일어난 흔적도 없었다. 목 주변에는 멍과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양팔은 가슴 위로 굽혀진 채 굳어 있었다. 오른손은 꽉 쥐고 있었으나, 왼손은 반쯤 펴진 상태였다. 왼쪽 손목에는 원형의 찰과상이 두 군데 있었는데, 이는 밧줄이나 밧줄을 여러 번 감았을 때 생기는 흔적으로 보였다. 오른쪽 손목 일부와 등 전체도 심하게 쓸려 있었으며, 특히 견갑골 부위의 상처가 두드러졌다. 어부들이 시신을 해안가로 끌어올릴 때 밧줄을 사용하긴 했으나, 발견된 찰과상들은

이 밧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목의 살점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절상이나 타격에 의한 멍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목에 레이스 조각 하나가 아주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그 상태가 워낙 심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레이스는 살점 속으로 완전히 파묻혀 있었으며, 왼쪽 귀 바로 아래에서 매듭이 묶여 있었다. 이 레이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검시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품행이 단정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또한 고인은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드레스는 여기저기 심하게 찢기고 흐트러진 상태였다. 겉옷에는 폭이 약 1피트 정도 되는 천 조각이 밑단부터 허리까지 위쪽으로 찢겨 있었으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다. 그 천은 허리에 세 번이나 감겨 있었고, 등 뒤쪽은 일종의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겉옷 바로 아래에 입은 드레스는 고운 머슬린 소재였다. 그런데 이 드레스에서는 폭 18인치의 천 조각이 통째로 뜯겨 나가 있었다. 아주 매끄럽고 정성스럽게 뜯어낸 흔적이었다. 뜯겨 나간 천은 그녀의 목에 느슨하게 둘러져 있었고, 단단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이 머슬린 천과 레이스 조각 위에는 보닛의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보닛 또한 그 끝에 매달려 있었다. 보닛 끈을 묶은 매듭은 여인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미끄러지기 쉬운 형태의 선원 매듭이었다.

시신을 확인한 뒤, 시신을 평소처럼 검시소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미 신원이 확인되었기에 그런 절차는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신 시신은 강가로 끌어 올린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둘러 매장되었다. 보베

의 노력 덕분에 사건은 가능한 한 조용히 묻혔고,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중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한 주간지는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시신을 다시 파내어 재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미 언급한 내용 외에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었다. 다만,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소녀가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임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그사이 소동은 시간마다 더욱 격렬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특히 자크 생퇴스타슈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마리가 집을 나선 일요일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처음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G 경찰청장에게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고, 문제의 날에 자신이 매 시간 어디에 있었는지 만족스럽게 소명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자, 온갖 모순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기자들 또한 저마다 추측을 내놓으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마리 로제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다. 센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마리가 아니라 다른 불행한 희생자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언급한 추측이 담긴 기사 몇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구절들은 대체로 필력이 뛰어난 신문인 <레투알>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로제 양은 18—년 6월 22일 일요일 아침, 드롬 거리의 이모나 다른 친척을 만나러 간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시간 이

후로 그녀를 목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행방이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날 그녀가 어머니의 집 문을 나선 뒤로,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비록 6월 22일 일요일 9시 이후에 마리 로제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수요일 정오 12시, 바리에르 뒤 룰 해안가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물 위로 떠올라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마리 로제가 어머니의 집을 나선 지 3시간 이내에 강에 던져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녀가 집을 떠난 지 고작 3일, 시간 단위까지 따져도 정확히 딱 3일 만에 발견된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 맞다면, 범인들이 자정 전에 시신을 강에 던질 수 있을 만큼 살인이 일찍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마리 로제의 것이라면, 시신은 물속에 채 2일 반, 길어야 3일 정도만 머물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익사한 시신이나 폭력적인 죽음 직후 물에 던져진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최소 6일에서 10일은 걸립니다. 시신 위로 대포를 쏘아 적어도 5~6일은 잠겨 있어야 떠오를 시신을 그 전에 억지로 떠오르게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 가라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게 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훼손된 상태의 시신이 화요일 밤까지 육지에 있었다면, 범인들의 흔적이 반드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신이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뒤에 강에 던져졌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떠오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같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악당들이,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한 무게추 같은 조치를 그렇게 쉽게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신을 그냥 던져버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편집자는 여기서 시신이 물속에 있었던 기간이 단순히 사흘이 아니라, 적어도 닷새에 사흘을 곱한 만큼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신이 너무 부패한 나머지 보베가 신원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번역을 이어가겠다.

"그렇다면 보베 씨는 대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시신이 마리 로제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는 드레스 소매를 찢어보고는,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은 보통 그 흔적이 일종의 흉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는 팔을 문질러보고는 그 위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호한 수준의 흔적이었고, 소매 안에서 팔을 찾아낸 것만큼이나 결론을 내리기엔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보베 씨는 그날 밤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요일 저녁 7시에 로제 부인에게 딸에 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제 부인이 고령인 데다 슬픔에 잠겨 직접 가보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령 그것을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여 준다 하더라도, 만약 시신이 마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조사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달려갔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파베 거리의 생트랑드레 주택가에서는 그 일에 대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조차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리의 연인이자 약혼자였던 자크 생퇴스타슈는 그녀의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다음 날 아침 보베 씨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약혼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소식이 이토록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문은 마리의 친척들이 마치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묘사하려 애썼다. 이는 친척들이 시신이 마리의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가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태도였다. 신문의 암시는 이러했다. 마리가 자신의 정조와 관련된 어떤 혐의를 피하려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떠났으며, 친구들이 센강에서 마리와 닮은 시신을 발견하자 이를 기회 삼아 마리가 죽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투알>지는 또다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친척들에게 그런 무관심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났다. 마리의 노모는 기력이 매우 쇠약해진 데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어떤 일도 돌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자크 생퇴스타슈 역시 소식을 듣고 냉정함을 유지하기는커녕 슬픔에 미쳐 날뛰었다. 그는 너무나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보베 씨가 친구이자 친척을 설득하여 그를 돌보게 해야만 했다. 덕분에 그는 시신을 다시 파헤치는 검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레투알>지는 시신을 공공 비용으로 다시 매장했으며, 유족 측이 사비로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유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가족 중 누구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신문이 의도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레투알>지가 주장한 것들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후 해당 신문은 보베 씨 본인에게 의혹을 돌리려 시도했다.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자, 이제 사건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B 부인이 로제 부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외출하려던 보베 씨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곧 헌병이 이곳으로 올 예정이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헌병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일은 그에게 맡겨두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보베 씨는 사건의 모든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없으면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어디를 가든 결국 그와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남자 친척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우 기묘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건에서 밀어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친척들이 시신을 보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신문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마리가 무법자 집단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쪽이었다. 그들이 마리를 강 건너로 끌고 가 학대하고 살해했다는 것이 대중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인 《르 코메르시엘》은 이러한 세간의 추측에 맞서며 이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나는 이 신문의 기사 중 한두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가 바리에르 뒤 룰 쪽으로 향했다면, 잘못된 단서를 좇아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젊은 여인처럼 수천 명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세 블록이나 지나가면서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녀는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때였습니다.

그녀가 바리에르 뒤 룰이나 드롬 거리를 지나갔다면 최소한 열두 명은 알아봤을 텐데, 정작 어머니의 집 밖에서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갔다는 증거라고는 그녀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관한 증언뿐입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겨 있었고, 몸을 감싸듯 묶여 있었습니다. 시신은 마치 꾸러미처럼 그렇

게 묶인 채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살인이 바리에르 뒤 룰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시신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시신이 바리에르 근처에서 떠다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시신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강물에 던져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한 소녀의 속치마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길이는 2피트, 폭은 1피트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이것이 찢겨서 소녀의 턱 아래를 지나 머리 뒤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손수건조차 없는 자들이나 할 법한 짓을 저지른 것이지요."

경찰청장이 우리를 찾아오기 하루 이틀 전, 경찰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다. 이 정보는 적어도 '르 코메르시엘'지가 내세운 주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뒤엎는 듯 보였다.

델뤼크 부인의 두 어린 아들이 바리에르 뒤 룰 근처의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에는 커다란 돌 서너 개가 마치 등받이와 발 받침대가 있는 의자처럼 놓여 있었다. 맨 위쪽 돌에는 하얀 속치마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 돌에는 실크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양산과 장갑, 그리고 손수건도 함께 발견되었다. 손수건에는 '마리 로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변의 가시덤불에서는 옷가지 조각들도 발견되었다. 땅은 짓밟혀 있었고 덤불은 꺾여 있어, 분명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짐작게 했

다. 덤불과 강 사이에는 울타리가 뽑혀 있었으며, 그 땅 위에는 무거운 짐을 끌고 지나간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주간지 《르 솔레유》는 이번 발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실었다. 이는 파리 언론 전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 물건들은 분명히 최소 3, 4주는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빗물에 젖은 채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고, 곰팡이 때문에 물건들이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 어떤 것들은 풀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위를 덮을 정도로 자라 있었다. 양산의 비단은 튼튼했지만, 안쪽의 실들은 서로 엉켜 있었다. 천을 겹쳐 접어두었던 윗부분은 곰팡이가 피어 썩어 있었고, 펼치려 하자마자 찢어지고 말았다.

덤불에 걸려 찢겨 나간 그녀의 드레스 조각들은 폭이 약 3인치, 길이는 6인치 정도였다. 한 조각은 수선한 흔적이 있는 드레스의 밑단이었고, 다른 조각은 밑단이 아닌 치마 부분이었다. 그 조각들은 마치 무언가에 뜯겨 나간 듯한 형태였으며, 지면에서 약 1피트 높이의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다.

따라서 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발견을 계기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 델뤼크 부인은 바리에르 뒤 룰 맞은편, 강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길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 일대는 매우 한적하고 외진 곳이다. 일요일이

면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온 불량배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사건이 발생한 그 일요일 오후 3시경, 한 젊은 여성이 피부색이 어두운 청년과 함께 여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여관을 떠난 두 사람은 근처의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다. 델뤼크 부인은 그 소녀가 입은 옷이 죽은 친척이 입었던 옷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스카프가 눈에 띄었다고 했다.

그 커플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량배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며 음식과 술을 먹고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더니 청년과 소녀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무리는 해 질 녘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그날 같은 저녁, 날이 어두워진 직후였다. 여관 근처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델뤼크 부인과 그녀의 장남은 그 소리를 들었다. 비명은 격렬했지만 짧게 끝났다. 델뤼크 부인은 덤불 속에서 발견된 스카프뿐만 아니라, 시신에서 발견된 드레스까지도 그 젊은 여성이 입고 있던 것으로 알아보았다. 합승마차를 모는 발랑스 역시 증언에 나섰다. 그는 사건 당일 일요일, 마리 로제가 피부색이 어두운 한 젊은 남성과 함께 센강의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발랑스는 마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착각할 리 없었다. 덤불에서 발견된 물건들 또한 마리의 친척들에 의해 모두 마리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뒤팽의 제안에 따라 내가 신문 기사들을 뒤져 수집한 증거와 정보 가운데 이제 단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서는 겉보기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였다. 앞서 설명한 옷가지들이 발견된 직후, 마리의 약혼자인 생퇴스타슈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숨이 끊어졌거나 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상태였으며, 발견된 장소는 현재 모두가 범행 현장이라고 추정하는 곳 근처였다. 그의 곁에서는 '라우다넘'이라고 적힌 빈 약병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의 숨결에서는 독극물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의 품 안에서는 마리를 향한 사랑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지를 짧게 적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내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 내 노트를 다 읽은 뒤팽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모르그가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 결정적인 차이점도 하나 있지. 이번 일은 끔찍하기는 해도, 아주 전형적인 범죄라네. 딱히 기괴하거나 비현실적인 구석이 없단 말이지.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풀기 쉽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훨씬 더 어렵게 접근했어야 했어.

처음에는 보상금을 걸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지. G—— 경찰청장의 부하들은 이런 잔혹한 범죄가 어떻게, 왜 일어날 수 있는지 곧바로 짐작해 냈으니까. 그들은 머릿속으로 범행 수법과 동기를 수없이 그려보았네. 그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실제 범행이었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그중 하나가 정답일 것이라고 단정 지어 버린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제각기 상상력을 발휘해 내놓은 그 그럴듯한 가설들은, 사건 해결이

쉽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네.

나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 이성이 진실을 찾아 나설 때, 평범한 수준을 벗어난 특이한 점을 이정표 삼아 길을 찾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되어야 하네.

레스파나예 부인의 집을 수사할 때, G── 경찰청장의 수사관들은 사건의 이례적인 특성 때문에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했네. 하지만 제대로 훈련된 지성이라면, 바로 그 특이함이야말로 성공을 예견하는 가장 확실한 징조로 받아들였을 것이네. 반대로 이번 향수 가게 소녀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눈앞에 펼쳐진 모든 정황이 너무나 평범했기에, 오히려 명석한 지성을 가진 이라면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지. 그럼에도 경찰청의 수사관들에게는 그저 쉽게 해결될 사건처럼 보였을 뿐이라네."

레스파나예 부인과 그녀의 딸 사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살했을 가능성은 즉시 배제되었지요. 이번 사건 역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살이라는 가정은 접어두어도 좋습니다. 바리에르 뒤 룰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 정황이 워낙 명백하여,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을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시신이 마리 로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인범, 혹은 범인들의 검거를 위해 현상금을 걸기로 했고, 오로지 그 범인들을 찾는 조건으로 경찰청장과 협약을 맺은 대상이 바로 마리 로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그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발견된 시신을 기점으로 수사를 시작해 범인을 추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시신이 마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살아있는 마리를 찾아냈는데 정작 그녀가 살해당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인물이 바로 G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바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마리 로제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일 말입니다.

<레투알>지가 내놓은 주장들은 대중 사이에서 상당한 무게를 얻고 있다. 이 신문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주제에 관한 논설을 시작하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신문은 "오늘 아침 발행된 여러 일간지가 월요일자 <레투알>에 실린 '결정적인'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기사는 기사를 쓴 이의 열의를 제외하면,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

우리는 보통의 신문들이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논란을 일으키는 데 더 목적을 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문이 진실을 쫓는 경우는 오직 그것이 자극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뿐이다. 설령 그 의견이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단순히 대중의 일반적인 견해에 편승하는 기사는 군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대중은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날카로운 모순'을 제시하는 사람만을 심오한 인물로 대접한다.

문학에서나 추리에서나, 사람들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환호를 받는 것은 재치 있는 경구다. 하지만 문학과 추리, 두 분야 모두에서 경구는 가장 수준 낮은 기법에 불과하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마리 로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과연 타당해서가 아닙니다. 그 주장이 《레투알》지의 눈길을 끌고 대중의 호응을 얻은 건, 그 아이디어가 품은 기발한 풍자와 극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신문이 내세운 논거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다만, 원문이 가진 앞뒤 안 맞는 서술 방식은 최대한 피해서 말입니다."

작가가 가장 먼저 보여주려는 것은 마리가 실종된 시점과 강물에 떠오른 시신이 발견된 시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사실이다. 이 짧은 시간 차이를 근거로, 작가는 발견된 시신이 마리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리하는 이에게 이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분석하는 일은 곧바로 하나의 목표가 된다. 하지만 성급하게 이 목표에 달려드는 그는 시작부터 막연한 추측에 빠지고 만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마리의 몸에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라면, 범인들이 자정이 되기 전에 시신을 강물에 던질 수 있을 만큼 살인이 빨리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즉시,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게 묻게 된다. 왜 그런가? 마리가 어머니의 집을 떠난 지 '5분 만에' 살인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가? 혹은 하루 중 어느 특정 시간에 살인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가? 암살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다. 설령 살인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자정 15분 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정 전에 시신을 강물에 던질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결국 작가의 이러한 가정은 '살인이 일요일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확히 같은 말이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레투알>지에게 이런 가정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 신문에 어떤 제멋대로의 주장이든 마음대로 펼치도록 허락하는 셈이 된다.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라면~'으로 시작하는 이 단락이 <레투알>지에 실제로 어떻게 인쇄되었든 간에, 글을 쓴 이의 머릿속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을 것이다.

“만약 마리의 몸에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라면, 범인들이 자정이 되기 전에 시신을 강물에 던질 수 있을 만큼 살인이 빨리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듯, 시신이 자정이 지나서야 강물에 던져졌다고 가정하면서 동시에 앞선 상황을 가정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이 문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신문에 인쇄된 문장만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다.

"만약 내 목적이 그저 레투알의 논증 중 이 대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만 있었다면, 그냥 이대로 두었을 겁니다." 뒤팽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레투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문제가 된 그 문장은 있는 그대로라면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갖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글자 너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문장이 분명히 의도했으나 결국 전달하는 데 실패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자의 의도는 이랬을 겁니다. 일요일 낮이든 밤이든 살인이 일어난 시각이 언제였든 간에, 범인들이 자정 이전에 시신을 강가로 옮기는 모험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내가 문제 삼는 가정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기자는 살인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황 하에 일어났기에 시신을 강가로 옮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강둑 바로 옆이나 강 위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가장 쉽고 즉각적인 처리 방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시각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논의는 사건의 사실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레투알의 주장이 처음부

터 한쪽 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논조 전체를 경계하고자 할 뿐입니다."

"신문은 이미 자신들의 선입견에 맞춰 범위를 한정해 버렸다. 만약 이 시신이 마리의 몸이라면 물속에 머문 시간이 아주 짧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말이다. 신문은 이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모든 경험에 따르면, 익사한 시신이나 폭력적인 죽음 직후 물에 던져진 시신이 충분히 부패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는 6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령 시신 위로 대포를 쏘아, 적어도 5, 6일은 물에 잠겨 있어야 떠오를 시신을 그보다 일찍 떠오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시신은 다시 가라앉기 마련이다.

르 모니퇴르를 제외한 파리의 모든 신문은 이러한 주장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르 모니퇴르지는 '익사한 시신'에 관한 단락의 내용 중 일부를 반박하려 애쓰고 있다. 이들은 익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시신이, 레투알지가 주장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만에 떠올랐던 다섯 여섯 가지 사례를 인용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레투알지의 일반적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 주장에 반하는 개별적인 사례들을 인용하는 르 모니퇴르지의 방식은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만약 이들이 이틀이나 사흘 만에 시신이 떠올랐던 사례를 다섯 개가 아니라 쉰 개나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쉰 개의 사례는 레투알지의 법칙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법칙에 대한 예외로만 간주될 뿐이다.

르 모니퇴르지는 레투알지의 법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예외가 있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일단 그 법칙을 인정한다면 레투알지의 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레투알지의 논거는 시신이 사흘이 채 되기 전에 수면으로 떠오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치한 사례들이 반대되는 새로운 법칙을 세울 만큼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이 확률은 여전히 레투알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필요하다면, 그 논거는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규칙의 근거를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규칙이 성립하는 원리를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은 센강의 물보다 훨씬 가볍지도, 그렇다고 훨씬 무겁지도 않다. 즉, 자연 상태의 인체는 밀도가 민물과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다. 뼈가 작고 살집이 있는 사람이나 대개 여성의 몸은, 뼈가 굵고 마른 체격의 남성보다 가볍다. 또한 강물의 밀도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조수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조수의 영향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인간의 몸이 민물에서 스스로 가라앉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강에 빠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과 물의 밀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만 있다면, 즉 몸 전체를 가능한 한 예외 없이 물속에 담그기만 한다면 누구나 떠오를 수 있다. 수영을 못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자세는 땅 위를 걷는 사람처럼 몸을 똑바로 세운 채 머리를 뒤로 완전히 젖혀 물에 담그는 것이다. 그러면 입과 코만 수면 위로 남게 된다. 이런 상태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체의 무게와 밀어낸 물의 무게는 아주 미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물속에 있던 팔을 들어 올리면 지지력을 잃게 되어 그 무게만큼 몸이 가라앉고, 결국 머리까지 물속에 잠기게 된다. 반대로 아주 작은 나무토막이라도 우연히 붙잡게 되면 머리를 들어 올려 주변을 살필 수 있다.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는 예외 없이 팔을 위로 치켜들면서, 동시에 머리는 평소처럼 똑바로 세우려 애를 쓴다. 그 결과 입과 코가 물에 잠기게 되고, 수면 아래에서 숨을 쉬려다 폐로 물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위장 속으로도 많은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몸속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 대신 물이 차오르면서, 몸 전체의 무게는 공기 무게와 물 무게의 차이만큼 더 무거워진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무게 차이면 몸이 가라앉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뼈가 작고 살이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런 사람들은 익사한 후에도 몸이 떠오른다.

“시신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면, 시신의 비중이 그 시신이 밀어낸 물의 비중보다 작아질 때까지는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부패가 진행되거나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 비중이 변해야만 시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세포 조직과 몸속의 모든 빈 공간을 팽창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끔찍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풀어 오른 부피가 무게나 질량의 증가 없이 실질적으로 커지게 되면, 시신의 비중은 밀어낸 물의

비중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시신은 즉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패는 수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에 따른 온도의 변화, 물속의 미네랄 함량이나 순도, 수심의 깊고 얕음, 물의 흐름이나 정체 여부, 그리고 시신 자체의 체질이나 사망 전 질병의 유무 등 무수히 많은 요인에 의해 부패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춰집니다. 따라서 부패 과정 중 시신이 언제 떠오를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한 시간 안에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영영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주입하여 동물의 사체를 영구히 부패하지 않게 보존할 수도 있는데, 염화제이수은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부패와는 별개로, 위장 속의 식물성 물질이 초산 발효를 일으키거나 다른 신체 내부 공간에서 다른 원인으로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스가 시신을 부풀릴 만큼 충분히 생성되면 시신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대포를 쏘았을 때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한 진동입니다. 이 진동은 시신을 붙잡고 있던 부드러운 진흙이나 뻘에서 시신을 떨어뜨려,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던 시신이 떠오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은 부패하기 시작한 세포 조직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가스의 영향으로 신체 내부 공간이 팽창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철학적 원리를 이처럼 정립해 두었으니, 이제 우리는 《레투알》지의 주장이 타당한지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경험적 사례에 따르면, 익사한 시신이나

폭력에 의해 사망 직후 물에 던져진 시신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6일에서 10일 정도의 부패 과정이 필요하다. 설령 시신 위로 대포를 쏘아 강제로 떠오르게 했다 하더라도, 최소 5, 6일은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그대로 두면 시신은 다시 가라앉고 만다."

이 단락 전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무의미한 말들의 나열에 불과해 보인다.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익사한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를 만큼 부패하려면 반드시 6일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과학적 사실과 실제 경험 모두, 시신이 떠오르는 시점은 가늠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불확실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만약 대포를 쏘아 발생한 충격으로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발생한 가스가 빠져나갈 만큼 부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어도 다시 가라앉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익사한 시신'과 '살해 직후 물에 던져진 시신' 사이의 차이점이다. 기사 작성자는 이 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들을 모두 같은 범주로 묶어버렸다. 나는 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의 부력보다 몸이 더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그가 팔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리려 발버둥 치거나 수면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지 않는 한 어떻게 전혀 가라앉지 않는지를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 헐떡임은 폐 속의 공기를 물로 채우게 된다.

그러나 '살해 직후 물에 던져진 시신'에서는 이러한 발버둥이나 헐떡임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시신은 일반적으로 전혀 가

라앉지 않는데, <레투알>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모르고 있는 듯하다. 부패가 아주 많이 진행되어 살점이 뼈에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신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발견된 시신이 마리 로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 고작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신이 물 위에 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더군요. 만약 익사했다면, 여성의 몸이니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 있었을 수도 있고, 설령 가라앉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다시 떠올랐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익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숨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강에 던져진 후 언제라도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투알>지는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시신이 화요일 밤까지 강가에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범인들이 남긴 흔적이 강가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논객이 무엇을 의도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처음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 제기될 법한 반론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즉, 시신이 물속에 있을 때보다 강가에 이틀 동안 방치되어 부패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반론 말이다. 그는 만약 시신이 강가에 있었다면 수요일쯤에는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것이라 가정하며, 오직 그런 상황에서만 시신이 그렇게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시신이 강가에 방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둘러 증명하려 한다. 만약 시신이 강가에 있었다면 '범인들이 남긴 흔적이 강가에서 발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은 이 논리적 비약에 실소를 터뜨릴지도 모르겠다. 시신이 강가에 머

문 시간만으로 어떻게 살인범의 흔적이 늘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다.' 우리 신문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토록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악당들이,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한 무게추를 다는 수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게도 달지 않은 채 시신을 던져 넣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뒤엉켜 있는지 주목해 보라! 그 누구도—심지어 <레투알>지조차도—발견된 시신이 살해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시신에 남은 폭행의 흔적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추론가가 목표로 삼은 것은 단지 발견된 시신이 마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는 마리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시신이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다. 하지만 그의 관찰은 오직 후자의 사실만을 입증할 뿐이다.

지금 눈앞에는 무게추가 달리지 않은 시신이 있다. 살인범들이 시신을 던져 넣었다면 반드시 무게추를 달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신은 살인범들에 의해 던져진 것이 아니다. 만약 무언가 증명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까지다. 신원의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레투알>지는 불과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인정했던 사실을 이제 와서 부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다. <레투알>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발견된 시신이 살해당한 여성의 것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이것이 비단 이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의 추론가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논리를 뒤엎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신문의 명백한 목적은 마리가 실종된 시점과 시신이 발견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데 있다. 하지만 정작 신문은 마리가 어머니의 집을 나선 순간부터 그 누구도 소녀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6월 22일 일요일 9시 이후에 마리 로제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신문은 주장한다. 이처럼 신문의 논증은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것이기에, 적어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다. 만약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마리를 보았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문제가 된 시간적 간격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신문 스스로가 내세운 추리 방식에 따르더라도, 발견된 시신이 그 그리제트(grisette)의 것이라는 확률은 크게 낮아졌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투알>지가 자신들의 주장이 전체 논리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 점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제 보베가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된 논증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팔에 난 머리카락에 관해서라면, <레투알>지는 분명히 사실을 왜곡했네. 보베 씨는 바보가 아니야. 시신을 확인하면서 단순히 '팔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을 주장했을 리 없지 않은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팔은 없으니까 말일세. <레투알>지가 사용한 모호한 표현은 증인이 말한 내용을 교묘하게 비튼 것에 불과해. 그는 분명 그 머리카락의 어떤 특이한 점을 언급했을 것이네. 색깔이든, 양이든, 길이나 위치든, 분명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을 거야."

"'그녀의 발은 작았다'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작은 발은 세상에 널려 있다. 가터나 신발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 신발과 가터는 세트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모자에 달린 꽃도 마찬가지다. 보베 씨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점은, 발견된 가터의 버클이 조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별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여성은 가게에서 직접 착용해 보기보다는, 가터를 사서 집에 가져간 뒤 자신의 다리 크기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추론하는 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만약 보베 씨가 마리의 시신을 수색하던 중, 실종된 소녀와 체격 및 외형이 대체로 일치하는 시신을 발견했다면, 의복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수색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는 충분했을 것이다. 만약 체격과 윤곽이 일치하는 데 더해, 살아있는 마리의 팔에서 보았던 특이한 털 자국까지 발견했다면 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그 확신의 정도는 그 털 자국이 얼마나 특이하고 이례적인가에 비례하여 커졌을 터다.

만약 마리의 발이 작고 시신의 발도 작다면, 그 시신이 마리일 확률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즉 누적적으로 치솟는다. 여기에 실종 당일 마리가 신었던 것과 같은 신발까지 더해진다면, 비록 그 신발이 '세트로 판매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확률은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진다. 그 자체로는 신원을 증명할 증거가 되지 못할 요소도,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는 순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모자의 꽃이 실종된 소녀가 썼던 것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꽃이 단 한 송이라도 그렇다. 하물며 두세 송이, 혹은 그 이상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증거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증거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배로 '증폭'되는 것이다.

이제 시신에서 살아있는 마리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가터를 발견한다면, 더 이상의 추론은 무의미할 정도다. 그런데 발견된 가터는 버클을 뒤로 밀어 조절된 상태였으며, 이는 마리가 집을 나서기 직전 자신의 가터를 조절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쯤 되면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광기이거나 위선이다. 가터의 길이를 줄이는 일이 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레투알>지의 보도는, 그저 잘못된 견해를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버클형 가터는 스스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에, 별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례적인 상황임을 증명한다. 조절 기능이 있는 물건은 외부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마리의 가터를 그렇게 조여야만 했던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사고'였을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신원은 충분히 입증되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시신에서 실종된 소녀의 가터가 발견되었다거나, 신발, 모자, 모자의 꽃, 작은 발, 팔의 특이한 자국, 혹은 전체적인 체격과 외형 중 어느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시신이 이 모든 것을, 즉 '이 모든 요소 전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약 <레투알>지의 편집장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의구심을 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는 법조인들의 뻔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법조인들 역시 대개 법원의 경직된 원칙을 되풀이하는 데 만족하곤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들 중 상당수가 지성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법원은 입증된 원칙, 즉 '교과서적인 원칙'을 지침으로 삼기에 개별적인 특수 사례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린다. 원칙을 굳게 고수하며 상충하는 예외 사항들을 엄격히 무시하는 방식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을 얻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집단적으로는 철학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막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보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신사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셨으니까요. 그는 참견하기 좋아하면서도 낭만적이기만 할 뿐, 재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나 악의를 품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도 하지요.

당신의 기록을 보니, 보베 씨는 <레투알>의 편집자와 몇 차례 직접 만난 적이 있더군요. 보베 씨는 편집자의 이론과는 달리, 냉정하게 따져보았을 때 시신이 마리의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 때문

에 편집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는 시신이 마리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미 언급한 사실들 외에 타인을 설득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타인을 설득할 만한 더 강력한 증거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제삼자에게 내놓을 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정 사실을 믿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개인의 정체를 파악하는 인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모호한 법입니다. 누구나 이웃을 알아보고 인식하지만, 자신이 왜 그를 알아보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레투알>의 편집자가 보베 씨의 근거 없는 확신에 대해 불쾌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상한 정황들은, 그가 범인이라는 논리적 추론보다는 차라리 로맨스에 빠진 참견쟁이라는 나의 가설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 조금 더 너그러운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열쇠구멍에 꽂힌 장미나 석판에 적힌 '마리'라는 이름, '남성 친척들을 밀쳐내려 했던 행동', '친척들이 시신을 보는 것을 막으려 했던 태도'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보베가 돌아올 때까지 B—— 부인에게 헌병과 대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 외에는 누구도 이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 점도 마찬가지다. 보베가 마리에게 구애하던 사람이었으며, 마리 또한 그에게 추파를 던졌고, 보베는 자신이 그녀와 가장 친밀하고 각별한 사이로 비치기를 원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또한,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이 무관심했다는 《레투알》지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다. 만약 그들이 시신의 주인공이 향수 가게 점원이라고 믿었다면, 결코 그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신원 확인 문제는 완벽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렇다면," 내가 물었다. "당신은 《르 코메르시엘》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들은 내용 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발표된 그 어떤 글보다 훨씬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제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은 철학적이고 예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그 전제 자체가 불완전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르 코메르시엘>지는 마리가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불량배 집단에게 붙잡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수천 명에게 알려진 이 젊은 여성이 세 블록을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파리에 오래 거주한 공인(公人)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기자의 활동 범위는 주로 관공서 인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 열두 블록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조차,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폭,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아는 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명세와 향수 가

게 점원인 마리의 유명세를 비교해 보더니,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 역시 평소처럼 길을 걷는다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띌 것이라는 결론을 즉시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의 산책 경로가 기자처럼 늘 일정하고 규칙적이며,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 논리가 성립합니다. 기자는 정해진 구역 안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오갑니다. 그 구역에는 기자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의 행색을 살피게 됩니다. 반면 마리의 산책은 대체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마리가 평소 다니던 길과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르 코메르시엘>지가 머릿속으로 상정한 이 평행 이론은, 두 사람이 파리 전역을 누빈다는 조건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도시 전체를 돌아다닌다면, 지인 관계의 폭이 같다는 전제하에 마주치는 사람의 수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마리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집과 이모의 집 사이를 수많은 경로 중 하나를 택해 이동했다면, 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아는 이에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오히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는 사람의 수와 파리 전체 인구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르 코메르시엘>지의 보도가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 소녀가 집을 나선 시간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르 코메르시엘>지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일 때 그녀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평일 오전 9시라면 도시의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예외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느라 집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도시가 유독 한산해지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10시에서 11시 사이이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르 코메르시엘』지의 관찰력이 부족해 보이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비운의 소녀가 입었던 속치마 조각이 발견되었다. 길이는 2피트, 폭은 1피트 정도였다. 이 천 조각은 소녀의 비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턱 아래와 머리 뒤쪽을 감싸도록 묶여 있었다. 아마도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저지른 짓일 것이다.' 이 추측이 타당한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지만 편집자가 말한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란, 가장 질 나쁜 부류의 악당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셔츠조차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일지언정, 손수건만큼은 반드시

챙겨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주 질 나쁜 악당들에게 손수건이 얼마나 필수적인 물건이 되었는지 당신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르 솔레유》에 실린 기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차라리 앵무새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자기 종족 중에서 가장 명성 높은 앵무새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는 그저 이미 발표된 의견들을 하나하나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이 신문 저 신문에서 칭찬할 만한 근면함으로 정보들을 모아다 놓았을 뿐이지요. 그는 '그 물건들은 모두 분명히 적어도 3, 4주 동안 그곳에 놓여 있었으며,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발견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르 솔레유>지가 여기서 다시 기술한 사실들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실들은 뒤이어 다룰 사건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건들에 집중해야 하네. 시신에 대한 조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은 자네도 분명 눈치챘을 거야. 물론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거나, 마땅히 해결되었어야 했지. 하지만 확인해야 할 다른 사항들이 더 있었네. 시신이 어떤 식으로든 소지품을 빼앗긴 흔적은 없었는가? 사망자가 집을 나설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것들을 지니

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증거물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다른 문제들도 있지. 우리는 직접 조사해서 이 의문들을 풀어내야 하네.

자크 생퇴스타슈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겠어. 나는 이 인물을 의심하지는 않네만, 일단은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세. 일요일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서들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내야 하네. 이런 종류의 진술서는 얼마든지 미궁에 빠뜨릴 목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만약 진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생퇴스타슈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세. 그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만약 진술서에 거짓이 있었다면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거짓이 없다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일이며, 우리가 기존의 분석 방향을 바꿀 이유도 되지 않네."

“이제 제가 제안하려는 방식은 이 비극의 핵심적인 사건들에서 벗어나, 그 주변부의 정황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실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와 얽힌 부수적인 사건이나 정황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요. 법정에서 증거와 논의의 범위를 겉보기에 관련 있는 내용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증명해 왔고, 진정한 철학이 언제나 보여주듯, 진실의 거대한 부분, 어쩌면 그 대부분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사실들로부터 드러납니다.

현대 과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까지 계산에 넣기로 한 것도, 비록 그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계

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지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얻은 수많은 가치 있는 발견은 예외 없이 부수적이거나 우연한 사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발전을 도모할 때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 즉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발명이나 발견까지도 아주 폭넓게, 아니 최대한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만을 근거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더 이상 철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연' 또한 구조의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을 절대적인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수학적 공식의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진실의 상당 부분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정황에서 비롯되곤 하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이 원칙에 따라 수사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사건 자체의 흔적만 쫓는 대신, 사건을 둘러싼 당시의 정황들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당신보다 더 폭넓게 신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사할 영역을 가늠해 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대로 언론 매체들을 종합적으로 훑어본다면, 분명 수사의 방향을 잡아줄 아주 미세한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일이겠지요."

뒤팽의 제안에 따라, 나는 선서 진술서 사건을 꼼꼼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술서들은 확실히 유효했으며 그에 따라 자크 생퇴스타슈는 결백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동안 내 친구는 목적도 없어 보이는 아주 세세한 작업에 몰두했는데, 바로 여러 신문 기사들을 샅샅이 뒤지는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그는 내 앞에 다음과 같은 발췌문들을 내놓았다.

"약 3년 반 전에도 지금과 매우 흡사한 소동이 있었다. 팔레 루아얄에 있는 르 블랑 씨의 향수 가게에서 마리 로제가 사라진 사건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평소처럼 단골 계산대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약간 창백한 기색이 돌긴 했지만 말이다. 르 블랑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마리가 그저 시골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 갔을 뿐이라고 발표했고, 사건은 빠르게 일단락되었다. 우리는 이번 실종 역시 그때와 같은 성격의 돌발적인 일이라고 추측한다. 아마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녀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 저녁 신문 — 6월 23일 월요일.

"어제 발행된 저녁 일간지에 따르면, 로제 양이 과거에 의문의 실종 사건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다. 그녀가 르 블랑 향수 가게를 비웠던 그 일주일 동안,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던 한 젊은 해군 장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긴 덕분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그 난봉꾼이 누구인지 그 이름도 알고 있으며, 그는 현재 파리에 주둔하고 있다. 다만 명백한 사유로 인해 그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한다." — 르 메르퀴리 —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8)

"그저께 이 도시 인근에서 극도로 잔인한 범죄가 발생했다. 해 질 녘 무렵, 한 신사가 부인 및 딸과 함께 센강 변에서 한가로이 배를 젓고 있던 청년 여섯 명을 고용해 강을 건너려 했다. 반대편 기슭에 도착하자 세 승객은 배에서 내렸고, 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걸어갔다. 그때 딸이 배에 양산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양산을 찾으러 되돌아갔을 때, 청년 무리는 그녀를 붙잡아 강 한복판으로 끌고 갔다. 범인들은 그녀의 입을 막고 잔인하게 폭행한 뒤, 처음 부모와 함께 배에 올랐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의 강가에 그녀를 버려두고 떠났다. 범인들은 현재 도주 중이지만 경찰이 추적하고 있으며, 곧 일부가 검거될 것으로 보인다." — 모닝 페이퍼, 6월 25일 자.

"최근 발생한 잔혹한 범죄의 책임을 메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목적을 가진 서신이 한두 통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 신사의 무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서신을 보낸 이들의 주장은 깊이 있는 논거보다는 그저 열의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모닝 페이퍼 — 6월 28일 자.

"우리는 다양한 출처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쓰인 통신문들을 여러 통 받았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불행한 마리 로제가 일요일마다 도시 인근을 들끓게 하는 수많은 불량배 집단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우리 신문 측 역시 이러한 가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들은 이후 지면을 통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저녁 신문 — 6월 31일 화요일. (*22)

"월요일, 세관 소속의 바지선 사공 중 한 명이 센강을 떠내려가는 빈 배 한 척을 발견했다. 배 바닥에는 돛이 놓여 있었다. 사공은 그 배를 견인하여 바지선 사무소로 가져갔다. 다음 날 아침, 사무소 직원 중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현재 배의 키만 바지선 사무소에 남아 있는 상태다." — 르 딜리장스, 6월 26일 목요일 자.

이 여러 발췌문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그것들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도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뒤팽이 설명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췌문을 길게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이 글들을 옮겨 적은 주된 이유는 경찰의 극심한 태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장의 설명을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은 언급된 그 해군 장교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처음 사라졌을 때와 두 번째로 사라졌을 때 사이에 어떠한 '개연성 있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첫 번째 도주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이어졌고, 배신당한 마리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도주(물론 이것이 정말 도주인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마리에게 구애를 한 결과라기보다는, 배신자가 다시 접근을 시도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옛 사랑을 다시 이어가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도주를

제안받았던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그런 제안을 받을 확률보다는, 한때 마리와 함께 도주했던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도주를 제안할 확률이 열에 아홉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도주와 두 번째로 추정되는 도주 사이의 시간 간격은, 우리 군함들의 일반적인 항해 기간보다 몇 달 더 깁니다. 만약 그 연인이 첫 번째 악행을 저지르던 중 출항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다 돌아오자마자,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비열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첫 기회를 틈타 다시 시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아니, '그'가 아직 완전히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 번째 경우에 대해, 상상했던 것과 같은 야반도주는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조차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생퇴스타슈나 어쩌면 보베를 제외하면, 마리의 구혼자 중 공인되었거나 공개되었거나 혹은 명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마리의 친척들 중 적어도 대부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연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마리가 일요일 아침에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마리가 그를 얼마나 깊이 신뢰했기에 바리에르 뒤 룰의 외딴 숲속에서 저녁 그림자가 드리울 때까지 망설임 없이 그와

함께 머물렀단 말입니까? 적어도 대부분의 친척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연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또한, 마리가 떠나던 날 아침 로제 부인이 남긴 그 기묘한 예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두렵구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로제 부인이 도망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계획을 세운 쪽은 마리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마리는 집을 나설 때 드롬 거리의 이모를 만나러 간다는 뜻을 내비쳤고, 생퇴스타슈에게는 어두워지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 점만 놓고 보면 제 가설에는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가 누군가와 동행하여 강을 건넜고, 오후 3시라는 늦은 시각에 바리에르 뒤 룰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마리가 그 일행을 따라나서기로 결심했을 때—그 목적이 어머니가 아는 것이든 모르든 간에—그녀는 분명 집을 나서며 말했던 자신의 계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된 시간에 드롬 거리로 마리를 데리러 갔던 약혼자 생퇴스타슈가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때 느꼈을 당혹감과 의구심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생퇴스타슈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들고 숙소로 돌아가 마리가 여전히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상황도 말입니다. 마리는 분명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생퇴스타슈가 겪을 실망과 모두의 의심을 예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의심을 무릅쓰고 돌아올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돌아올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의심은 그녀에게 그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해집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 야반도주를 하거나, 혹은 나만이 아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나기로 했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추격자를 따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해. 그러니 드롬 거리의 이모 댁을 방문해 하루를 보내겠다고 미리 말해두자. 그리고 생퇴스타슈에게는 어두워질 때까지 나를 데리러 오지 말라고 일러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의심이나 걱정을 사지 않으면서도 집을 최대한 오래 비울 수 있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어.

만약 생퇴스타슈에게 어두워질 때 데리러 오라고 말해두면, 그는 반드시 그전에는 오지 않겠지. 하지만 만약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말 거야. 사람들이 내가 일찍 돌아올 것이라 예상할 테니, 내 부재가 금방 걱정을 불러일으킬 테니까.

물론 내가 돌아올 생각이라면, 즉 그저 그 사람과 산책이나 할 생각이라면 생퇴스타슈에게 데리러 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상책이겠지. 그가 데리러 왔다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미리 말도 없이 집을 나서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서 드롬 거리의 이모 댁에 다녀왔다고 둘러댄다면, 그는 영원히 내가 속였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계획은 아예 돌아오지 않거나, 적어도 몇 주 동안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아니면 어떤 은폐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지. 그러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로지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뿐이야.'

"당신은 기록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람들은 이 소녀가 불량배 집단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믿어 왔지요. 사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대중의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생했을 때, 즉 순수하게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라면, 우리는 그것을 천재적 개인만이 가진 특유의 '직관'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 경우라면 저 역시 그 여론의 판단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여론에 눈에 띄는 '암시'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은 반드시 엄격하게 '대중 스스로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고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불량배 집단이 개입했다는 '대중의 의견'은 제가 발췌한 세 번째 기록에 상세히 나온 부수적인 사건 때문에 덧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젊고 아름다우며 이름이 알려진 소녀, 마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파리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신은 폭행의 흔적을 남긴 채 센강을 떠돌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시기에, 마리가 겪은 것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다소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 불량배 집단이 또 다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한 대중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대중의 판단은 누

군가 방향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발생한 그 사건이 그 역할을 아주 적절하게 수행한 셈입니다! 마리 역시 강에서 발견되었고, 그 잔혹한 범죄 또한 바로 이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오히려 대중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이미 드러난 그 잔혹한 범죄는 오히려 그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다른 범죄가 그런 방식으로 저질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어떤 불량배 집단이 특정 장소에서 전례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와중에, 같은 도시의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똑같은 양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또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우연히 떠올린 이 의견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경이로운 우연의 일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기 전에,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바리에르 뒤 룰의 덤불을 살펴보자. 이 덤불은 빽빽하긴 했으나 공공 도로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덤불 안에는 커다란 돌 세네 개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등받이와 발받침이 있는 의자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가장 위쪽 돌에서는 흰색 속치마가 발견되었고, 두 번째 돌에서는 실크 스카프가 나왔다. 양산과 장갑, 손수건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손수건에는 '마리 로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변 나뭇가지에는

옷가지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땅은 짓밟혀 있었고 덤불은 꺾여 있었으니,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언론이 이 덤불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열광하며, 그곳이 바로 범행 현장이라는 데 입을 모았지만, 사실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곳이 실제 현장이었는지 여부는 믿고 말고의 문제라 쳐도, 의심할 만한 근거만큼은 아주 확실했다. 만약 《르 코메르시엘》지의 추측대로 범행 현장이 파베 생드레 거리 인근이었다면, 범인들이 여전히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대중의 관심이 정확한 경로를 따라 집중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한 특정 부류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의심을 사고 있던 바리에르 뒤 룰의 덤불에 물건들을 갖다 놓으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수도 있다.

《르 솔레유》지는 그렇게 가정하지만, 발견된 물건들이 덤불 속에 고작 며칠을 넘겨 머물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비극적인 일요일부터 소년들이 물건을 발견한 오후 사이의 20일 동안, 그 물건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훨씬 더 많다. 《르 솔레유》지는 앞선 신문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쓰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물건들은 빗물에 젖어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고, 곰팡이 때문에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어떤 물건들은 풀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위를 덮을 정도로 자라 있었다. 양산의 비단은 튼튼했지만, 안쪽의 실들은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 양산

을 두 번 접어 놓았던 윗부분은 곰팡이가 피어 썩어 있었으며, 펼치자마자 찢어졌다."

'풀이 물건 주변을 에워싸고 위를 덮었다'는 대목에 관해 말하자면, 이 사실은 오직 두 어린 소년의 말, 즉 소년들의 기억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소년들은 제삼자가 물건을 보기 전에 이미 그것들을 치워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은 특히 따뜻하고 습한 날씨(살인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날씨와 같다)에는 하루에 2, 3인치씩도 자랄 수 있다. 새로 흙을 돋운 땅 위에 양산을 놓아두었다면, 단 일주일 만에도 솟아오른 풀에 완전히 가려질 수 있다.

또한 《르 솔레유》의 편집장이 방금 인용한 짧은 문단 안에서 무려 세 번이나 집요하게 언급한 그 곰팡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그는 정말로 곰팡이의 성질을 모르는 것인가? 곰팡이란 수많은 균류 중 하나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24시간 이내에 돋아났다가 부패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인가?

한눈에 봐도 명백한 사실이 있다. 물건들이 덤불 속에 '적어도 3, 4주 동안' 방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들은, 정작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서는 터무니없을 만큼 무가치하다. 반대로, 그 물건들이 지정된 덤불 속에 일주일 이상, 즉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머물렀다고 믿기란 매우 어렵다.

파리 인근 지리에 조금이라도 밝은 사람이라면, 교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서는 은밀한 장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것이다. 파

리 주변의 숲이나 수풀 속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거나 드물게 방문하는 구석진 곳 따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본래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직무 때문에 이 거대 도시의 먼지와 열기 속에 묶여 지내는 이가 있다면, 평일이라도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독을 만끽하려 시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두 걸음마다 불량배나 흥에 겨워 떠드는 무리가 내는 목소리와 침범에 부딪혀, 자연이 주는 매력을 잃고 말 것이다. 아무리 빽빽한 잎사귀 사이로 몸을 숨겨보려 해도 소용없다. 그곳이야말로 지저분한 무리가 가장 많이 모여드는 구석진 곳이며, 신성한 자연이 가장 심하게 더럽혀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방랑자는 마음의 병을 얻은 채, 차라리 덜 혐오스럽고 덜 이질적인 오물 구덩이인 파리 시내로 도망치듯 돌아갈 것이다.

평일에도 도시 근처가 이토록 시끄럽다면, 안식일인 일요일에는 오죽하겠는가!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평소 저지르던 범죄의 기회가 사라지면, 도시의 불량배들은 더욱더 도시 근처를 찾아든다. 그들이 시골을 사랑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이 경멸하는 전원 풍경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약과 관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그들은 신선한 공기나 푸른 나무보다는, 시골 특유의 방종함을 갈망한다. 길가 여관이나 숲의 잎사귀 아래에서, 그들은 동료들의 눈 외에는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은 채 자유와 술이 만들어낸 가짜 흥겨움에 빠져 광란의 방탕함을 즐긴다.

냉철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문제의 물건들이 파리 인근의 덤불 속에 일주일 이상, 즉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상황은, 기적에 가까운 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범행의 진짜 현장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그 물건들을 덤불 속에 갖다 놓았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우선, 그 물건들이 발견된 날짜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다섯 번째 기록의 날짜와 이 발견 날짜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발견된 시점은 저녁 신문사에 긴급한 제보들이 전달된 직후였습니다.

이 제보들은 내용도 제각각이고 출처도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결국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이 특정 갱단이며, 범행 장소는 바리에르 뒤 룰 인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심은, 제보나 그로 인해 형성된 대중의 관심 때문에 소년들이 물건을 찾아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심은 따로 있습니다. 소년들이 그전까지 물건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애초에 그 물건들이 덤불 속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보를 보낸 범인들이 제보를 보낸 날짜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직전에, 물건들을 그곳에 직접 갖다 놓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덤불은 참으로 기묘했다. 아주 기묘하기 짝이 없었다. 덤불은 유난히도 빽빽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벽 안쪽에는 세 개의 특이한 돌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발 받침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 덤불은 자연의 솜씨가 깃든 신비로운 공간이었는데, 불과 몇 로드 떨어진 곳에는 델뤼크 부인의 저택이 있었다. 그 집 소년들은 사사프라스 껍질을 찾으려 집 주변의 관목들을 샅샅이 뒤지곤 했다. 만약 내가 천 대 일의 도박을 제안한다면, 과연 그 소년들 중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이 그늘진 덤불 속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겠느냐고 말이다. 이런 내기에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년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소년 특유의 본성을 잊어버린 사람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물건들이 어떻게 덤불 속에 하루나 이틀 이상 발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르 솔레유》지가 단정적으로 무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들이 비교적 최근에야, 즉 발견되기 얼마 전에야 그곳에 갖다 놓였다는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물건들이 그곳에 놓여 있다고 믿을 만한,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그 어떤 이유보다 더 강력하고 다른 이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이 배치된 방식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주목해 주십시오. 맨 위 돌 위에는 흰색 속치마가 놓여 있었고, 두 번째 돌 위에는 실크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양산과 장갑, 그리고 '마리 로제'라는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싶어 하는, 그리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꾸며놓은 배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물건들은 땅바닥에 널브러진 채 사람

들에게 짓밟혀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좁은 덤불 속에서 여러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면, 속치마와 스카프가 돌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으며, 땅은 짓밟히고 덤불은 꺾여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속치마와 스카프는 마치 선반 위에 올려둔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덤불에 걸려 찢겨 나간 옷 조각들은 너비 3인치, 길이 6인치 정도였다. 그중 한 부분은 옷단이었는데 이미 수선된 상태였다. 그것들은 마치 뜯어낸 조각처럼 보였다.' 여기서 《르 솔레유》지는 부주의하게도 매우 의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묘사된 대로 그 조각들이 '뜯어낸 조각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손을 써서 뜯어낸 것이지, 자연적으로 뜯겨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가시 같은 것에 걸려 지금 문제의 옷에서 조각이 '뜯겨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종류의 직물은 가시나 못이 걸리면 직물의 성질상 직각 방향으로 두 갈래의 세로 균열이 생기며 가시가 들어간 지점에서 만날 뿐, 조각 자체가 통째로 '뜯겨 나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일은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직물에서 조각을 뜯어내려면 거의 예외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물에 가장자리, 이를테면 손수건처럼 뜯어낼 수 있는 끝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힘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상은 가장자리가 하나뿐인 드레스입니다. 가장자리도 없는 옷의 안쪽 부분에서 조각이 뜯겨 나가려면, 가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설령

가장자리가 있다고 해도, 두 개의 가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가장자리에 단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옷단이 단단히 박음질되어 있다면, 그런 일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단순한 '가시'의 작용으로 옷 조각이 '뜯겨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그렇게 뜯겨 나갔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중 한 부분은 옷단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각은 '옷단이 아닌 치마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즉, 가시의 힘만으로 드레스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안쪽 부분에서 조각이 통째로 뜯겨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시신을 옮길 만큼 치밀한 주의력을 가진 살인범들이 왜 이 덤불 속에 물건들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그 놀라운 정황보다, 오히려 의심을 살 만한 근거는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덤불을 범행 현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게는 델뤼크 부인의 저택에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범행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토록 세세하게 이 사실들을 늘어놓은 이유는, 첫째로 《르 솔레유》지의 성급하고 단정적인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

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보다 주된 목적은 여러분을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로 이끌어, 이번 암살 사건이 집단적인 범행인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검시 과정에서 소견을 밝힌 외과의가 언급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살짝 언급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가 발표한 추론, 즉 범인이 여러 명의 불량배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리의 명망 있는 해부학자들 모두가 그것이 부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당하게 조롱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추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리 없겠지만, 문제는 그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따져볼 점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몸싸움의 흔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흔적들이 무엇을 증명한다고들 했습니까? 바로 범죄 집단이 개입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 흔적들은 범죄 집단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무력한 소녀가, 상상 속의 그 불량배 집단과 맞서서 대체 어떤 싸움을 벌였다는 말입니까? 사방에 흔적을 남길 만큼 격렬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싸움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거친 팔 몇 개가 조용히 움켜쥐기만 했어도 상황은 금세 끝났을 겁니다. 피해자는 그들의 뜻에 따라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이 덤불 속이었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들은, 대부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저

지른 범죄라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범인이 단 한 명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방에 흔적을 남길 만큼 격렬하고도 끈질긴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물건들이 발견된 덤불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행의 증거가 된 물건들이 발견된 그 자리에 우연히 남겨졌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신을 옮길 만큼의 침착함(그렇게 추정됩니다만)은 있었으면서, 정작 시신보다 더 확실한 증거물은 왜 범행 현장에 눈에 띄게 방치해 두었을까요? 시신의 얼굴은 부패로 인해 금세 알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증거물은 고인의 이름이 적힌 손수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었다면, 그것은 범죄 집단이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오직 개인의 실수라고만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개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망령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눈앞에 미동도 없이 놓인 시신을 보고 그는 공포에 질립니다. 격정적인 분노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특유의 자신감 따위는 그에게 없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단둘이 있습니다. 그는 떨고 있으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처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는 시신을 강으로 운반하지만, 다른 범행 증거들은 뒤에 남겨둡니다. 모든 짐을 한꺼번에 옮

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남겨진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강가로 향하는 고된 여정 속에서 그의 공포는 배가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삶의 소리들이 그의 앞길을 에워쌉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발소리를 듣거나, 혹은 들린다고 착각하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합니다.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조차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간신히 강가에 다다라, 아마도 배를 이용해 그 끔찍한 짐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어떤 보물이 있기에, 혹은 어떤 복수의 위협이 있기에, 그 외로운 살인자를 다시 그 고되고 위험한 길로 불러들여 덤불 속의 소름 끼치는 기억 속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설령 돌아가고 싶다 해도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즉시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 끔찍한 덤불을 영원히 등진 채, 마치 다가올 재앙을 피하듯 달아납니다."

"하지만 일당이 움직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원수가 많았다면 그들은 훨씬 더 대담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물론, 천하의 악당 놈들에게 대담함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 집단이란 대개 그런 악당들로만 구성되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인원수가 많았다면 혼자였을 때 느꼈을 법한 그 당혹스럽고 이성 없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리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한두 명, 혹은 세 명 중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네 번째 사람이 그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을 테니까요. 또한 그들은 현장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인원이 충분했으니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챙겨서 떠날 수 있었을 테고,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겉옷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밑단에서 허리까지 폭이 1피트 정도 되는 천이 위쪽으로 찢겨 있었는데, 이 천이 허리를 세 번 감싸고 뒤쪽에서 매듭처럼 묶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시신을 운반할 때 손잡이로 쓰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런 방식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서너 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시신의 팔다리만 붙잡아도 충분히, 아니 가장 확실하게 옮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은 혼자서 행동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점은 '덤불과 강 사이에서 울타리 난간이 뜯겨 나간 채 발견되었고, 그 땅에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간 듯한 뚜렷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시신을 옮긴다면, 굳이 울타리를 뜯어내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신은 그냥 울타리 너머로 번쩍 들어 올리면 그만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시신을 땅에 끌어 흔적을 남길 만큼 어리석게 행동할 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 코메르시엘>지의 관찰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비운의 소녀가 입었던 속치마 조각 하나가 뜯겨 나갔다. 범인은 비명이 새 나가지 않도록 그 천 조각

을 소녀의 턱 아래와 머리 뒤로 둘러 묶었다. 아마도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모양이다.'"

"진정한 악당이라면 손수건 한 장쯤은 늘 품에 지니고 다니기 마련이라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그 사실이 아닙니다. 덤불 속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보면, '르 코메르시엘'지가 추측한 용도로 손수건이 부족해서 붕대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명 소리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명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붕대보다 훨씬 더 적합한 도구가 있었을 테니까요.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천 조각은 '목에 느슨하게 감겨 있었으며, 단단한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르 코메르시엘'지의 설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천 조각의 폭은 18인치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면직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세로로 접거나 구기면 아주 튼튼한 띠가 됩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 그 천은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살인범은 붕대를 시신의 허리에 묶어 어느 정도 거리를 옮겼을 것입니다(그곳이 덤불 속이었든 아니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옮기다 보니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 힘겨워졌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는 시신을 끌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보면 시신이 끌려간 흔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신을 끌기 위해서는 천의 한쪽 끝에 밧줄 같은 것을 매달아야 했습니다. 머리 부분이 걸림돌 역할을 해주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목

부근에 매다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이때 살인범은 분명히 시신의 허리에 감겨 있던 붕대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붕대가 시신에 복잡하게 엉켜 있었고 매듭도 까다로웠던 데다, 옷에서 '뜯어낸' 흔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차마 그것을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속치마를 찢어 새로운 천 조각을 만드는 편이 훨씬 쉬웠을 테니까요. 그는 속치마를 찢어 목에 단단히 묶은 뒤, 희생자를 강가 언저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구하기 번거롭고 용도에도 딱 맞지 않는 이 '붕대'를 굳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붕대를 써야만 했던 상황이 손수건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된 시점에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즉, 우리가 추측한 대로 덤불을 벗어난 뒤, 덤불과 강 사이의 길 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델뤼크 부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덤불 근처에 범죄 조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 비극이 일어났을 무렵, 바리에르 뒤 룰 인근에는 델뤼크 부인이 묘사한 것과 같은 조직이 열두 곳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델뤼크 부인의 증언은 다소 늦게 나왔고 매우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직은 바로 그 조직입니다. 정직하고 꼼꼼한 성격의 그 노부인은, 그 조직원들이 케이크를 먹고 브랜디를 들이켜면서도 정작 대가를 치르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분노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하지만 델뤼크 부인이 제시한 정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불량배 무리가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돈도 내지 않고 먹고 마시더니, 젊은 남녀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해 질 녘쯤 여관으로 돌아왔고,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서둘러 강을 건너갔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델뤼크 부인의 눈에는 더욱 다급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이 유린당한 자신의 케이크와 술에 대해 그토록 길고 애처롭게 한탄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쩌면 부인은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왜 굳이 서둘렀다는 점을 강조했겠습니까? 폭풍이 몰려오고 밤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작은 배를 타고 넓은 강을 건너야 한다면, 아무리 질 나쁜 불량배 무리라 할지라도 서둘러 귀가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가왔다'고 말한 이유는 아직 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당'들이 보여준 그 상스러운 서두름이 델뤼크 부인의 차분한 눈에 거슬렸던 건 그저 해 질 녘 무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델뤼크 부인과 그녀의 큰아들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여관 근처에서 들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델뤼크 부인은 비명 소리가 들린 저녁의 시점을 어떤 말로 표현했을까요? 그녀는 '어둠이 내린 직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린 직후'라면 적어도 어두운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해 질 녘 무렵'은 분명히 아직 낮인 상태를 뜻하지요.

따라서 그 무리가 바리에르 뒤 룰을 떠난 시점은, 델뤼크 부인이 들었다는(?) 그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임이 아주 명백합니다. 수많은 증언 기록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이 시간적 표현들은 제가 지금 당신에게 설명하는 방식과 똑같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모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신문사도, 혹은 경찰의 하수인들도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를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근거야말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고, 증언만 하면 전면 사면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린 상황에서, 하급 불량배 집단이나 그 어떤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조직원이라면 보상에 눈이 멀거나 처벌을 피하고 싶어 하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까 봐 전전긍긍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도 아주 빠르고 적극적으로 동료를 밀고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도 아직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말로 철저한 비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끔찍하고 어두운 범죄의 전말은 살아있는 인간 중 단 한두 명, 그리고 신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긴 분석 끝에 얻어낸, 보잘것없지만 확실한 결론들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델뤼크 부인의 집 안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이거나, 아니면 바리에르 뒤 룰의 덤불

속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후자라면 범인은 마리의 연인이거나, 적어도 그녀와 매우 가깝고 은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일 것입니다.

이 공범은 피부가 거무스름합니다. 거무스름한 피부색, 붕대의 '어긋난 매듭', 그리고 모자 리본을 묶은 '선원 매듭'은 모두 그가 선원임을 가리킵니다. 마리는 명랑한 성격이었으나 비굴한 처지는 아니었기에, 그녀와 어울렸던 이 인물은 평범한 선원보다는 높은 신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에 보내진 정교하고도 절박한 통신문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르 메르퀴리》가 언급한 첫 번째 도주 사건을 고려하면, 이 선원이라는 인물은 불행한 여인을 범죄의 길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해군 장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적절한 의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그 검은 피부의 남자가 왜 계속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 남자의 피부는 검고 거무스름합니다. 그것은 예사롭지 않은 거무스름함이었으며, 발랑스와 들뤼크 부인 모두에게 그를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특징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보이지 않을까요? 일당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살해된 소녀의 흔적만 남은 것입니까? 두 건의 범행 현장은 당연히 동일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범인들이라면 두 사람을 아마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는 살아있지만, 살인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

리가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온 지금이라면,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당시에는 그런 두려움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백한 사람이라면 범행을 알리고 범인을 지목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첫 번째 본능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책은 자연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소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범인을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의심에서 벗어나게 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그 일요일 밤에, 그가 결백하면서도 동시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살아있었음에도 범인을 고발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러한 상황, 즉 그가 결백하면서 동시에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경우뿐입니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단은 무엇입니까?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 방법은 더욱 늘어나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도주 사건의 전말을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봅시다. '그 장교'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 모든 내력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다음, 범죄 집단을 모함하려는 목적으로 저녁 신문에 보낸 여러 통의 서신을 서로 면밀히 대조해 봅시다. 이 작업이 끝나면, 해당 서신들의 문체와 원고 상태를 이전에 아침 신문에 보냈던 서신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시 서신들은 메네의 유죄를 그토록 격렬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

든 과정을 마친 뒤에는, 이 서신들을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원고들과 다시 한번 대조해 봅시다.

또한 델뤼크 부인과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옴니버스 운전사인 발랑스를 반복해서 심문하여, '검은 피부의 사내'가 어떤 외모와 태도를 지녔는지 최대한 파악해 봅시다. 질문을 교묘하게 던진다면, 이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인물의 외모나 다른 특징에 관한 정보를 내놓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조차 스스로 알고 있는지 모를 정보까지 말입니다.

이제 6월 23일 월요일 아침, 나룻배 사공이 건져 올린 그 배의 행방을 쫓아봅시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 어느 시점에, 당직 중이던 관리도 모르게 키조차 없는 상태로 나룻배 사무실에서 사라진 그 배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끈기 있게 추적한다면 반드시 그 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배를 건져 올린 사공이 배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가 근처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한 사람이라면, 돛단배의 키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버려두고 갔을 리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를 던져두고 싶군요. 이 배를 건져 올렸다는 광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는 조용히 나룻배 사무실로 옮겨졌고, 역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배의 주인이나 고용주가 어떻게 광고도 없이, 그것도 화요일 아침이라는 이른 시간에 월요일에 건져 올린 배의 위치를 알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해군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그 사소한 지역 소식까지도 알 수밖에 없는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외로운 살인마가 시신이라는 짐을 끌고 해안가로 향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나는 이미 그가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마리 로제가 배 위에서 물속으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신을 해안가의 얕은 물가에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등과 어깨에 남은 특이한 흔적은 배의 밑바닥 갈비뼈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신에 아무런 무게추가 달려 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만약 해안가에서 시신을 던졌다면 분명 무게추를 매달았을 것이다. 무게추가 없었다는 사실은, 살인마가 배를 띄우기 전에 미리 무게추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깜빡했다고 가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시신을 물속으로 던지는 순간, 그는 분명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저주받은 해안가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끔찍한 짐을 처리한 살인마는 서둘러 도시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부두에 도착해 땅으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배는 어떻게 했을까? 배를 안전하게 묶어두었을까? 그는 배를 고정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다급했을 것이다. 게다가 부두에 배를 묶어두는 행위는 마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의 본능적인 생각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가능한 한 멀리 떨쳐버리는 것이었을 터다. 그는 부두에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배를 그 자리에 남겨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분명 배를 물결에 흘려보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상상을 이어가 보자. 다음 날 아침, 그 불행한 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다. 자신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 어쩌면

직무상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장소에서 자신이 탔던 배가 발견되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날 밤, 그는 감히 키를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키를 떼어내 버린다. 그렇다면 키가 없는 그 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그 배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 성공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 이 배는 비극적인 안식일의 한밤중에 배를 몰았던 범인에게, 우리 자신조차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증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날 것이며, 결국 살인마의 행방이 쫓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겠지만, 많은 독자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달된 원고 중 뒤팽이 찾아낸 사소해 보이는 단서를 추적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룬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그 결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사실과, 경찰청장이 비록 내키지는 않았으나 슈발리에와 맺은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다는 점만 간략히 밝혀둔다. 포 씨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편집자 (*23)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에 관한 것일 뿐이다. 이 주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 따위는 전혀 없다. 자연과 그 자연을 만든 신이 서로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이 자연을 창조했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여기서 '의지에 따라'라고 말한 이유는, 이 문제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리적 광기에 빠진 이들은 이것을 힘의 문제로 오해하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신이 자신의 법칙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칙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본래 이 법칙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까지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신에게 있어 모든 것은 곧 '지금'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로서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기술하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메리 세실리아 로저스의 운명—비록 그 운명이 어디까지 알려졌는지는 불분명할지라도—과, 마리 로제의 삶에서 특정 시점까지의 행적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일치함이 너무나도 정교하여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혹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방금 언급한 시점부터 마리의 비극적인 서사를 이어가며 그녀를 둘러싼 수수께끼의 결말을 추적한다고 해서, 이 평행선이 더 확장될 것이라 암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파리에서 한 그리제트의 살인범을 잡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나, 그와 유사한 추론 방식이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제안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후자의 가설에 관해서라면, 두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음으로써 중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마치 산수에서 아주 작은 계산 실수가 계산 과정 전반에 걸쳐 곱해지면서, 결국 진실과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다.

전자의 가설에 관해서라면, 내가 앞서 언급한 바로 그 확률론이 이 평행 관계를 더 연장하려는 모든 생각을 금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평행 관계가 이미 오랫동안 길게 이어져 왔고 정확했던 만큼, 확률론이 그것을 금하는 정도 또한 그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수학과는 전혀 무관한 사고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수학자만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례적인 명제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연속으로 두 번이나 6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세 번째 던지기에서는 6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엄청난 배당을 걸어야 한다고 일반 독자를 설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제안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즉각 거부감을 느낀다. 이미 끝난 두 번의 투척은 완전히 과거의 일일 뿐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투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이 나올 확률은 평상시와 정확히 똑같다. 즉, 주사위가 던져질 때 발생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만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자명해 보여서, 이를 반박하려는 시도는 진지한 검토를 받기보다는 비웃음을 사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매우 중대하며 자칫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그 오류를 일일이 파헤칠 수는 없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오류가 세부적인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이성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실수 중 하나라는 사실뿐이다.

주석 — 마리 로제

「마리 로제」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지금 덧붙인 각주들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비극이 일어난 지 수년이 흘렀기에, 각주를 달아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몇 마디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뉴욕 인근에서 메리 세실리아 로저스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대중에게 강렬하고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이 글을 쓰고 발표하던 시점(1842년 11월)까지도 그 사건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파리의 한 그리제트(grisette)가 겪은 운명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메리 로저스 살인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면서, 부차적인 사실들은 그에 맞춰 평행하게 구성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허구에 근거해 전개

되는 모든 논증은 실제 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마리 로제의 수수께끼」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조사 수단이라고는 신문 기사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주변 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다면, 신문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었던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록해 둘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인물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야기 속의 델뤼크 부인입니다.) 이들의 자백은 본문의 전반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세웠던 주요 가설의 세부 사항들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2) 폰 하르덴부르크의 필명.

(*3) 나소 거리.

앤더슨.

허드슨강.

위호큰.

페인.

크로멜린.

(*9) 뉴욕의 「머큐리」지.

H. 헤이스팅스 웰드 씨가 편집한 뉴욕의 「브라더 조나단」지.

뉴욕 「저널 오브 코머스」(*11)

(*12) 필라델피아의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 C. I. 피터슨 편집.

아담

(*14) “모르그가의 살인”을 참조할 것.

(*15) 스톤 대령이 편집하는 뉴욕의 「커머셜 애드버타이저」지.

“사물의 속성에만 근거한 이론은 그 사물이 지닌 본래의 목적에 따라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는다. 또한 원인을 따져 주제를 배열하는 이는 결과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의 법학에서도 법이 하나의 과학이자 체계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되지 못한다. 분류 원칙에 맹목적으로 헌신한 나머지 영미법이 저지른 오류는, 입법부가 기존의 체계가 잃어버린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개입해야 했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 랜도어

(*17) 뉴욕 “익스프레스”

뉴욕 "헤럴드"지.

(*19) 뉴욕 “쿠리어 앤 인콰이어러(Courier and Inquirer)”지.

메네는 당초 용의선상에 올라 체포되기도 했으나,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인물 중 하나였다.

(*21) 뉴욕 “쿠리어 앤 인콰이어러(Courier and Inquirer).”

(*22) 뉴욕 “이브닝 포스트”

(*23) 해당 기사가 처음 게재되었던 잡지.